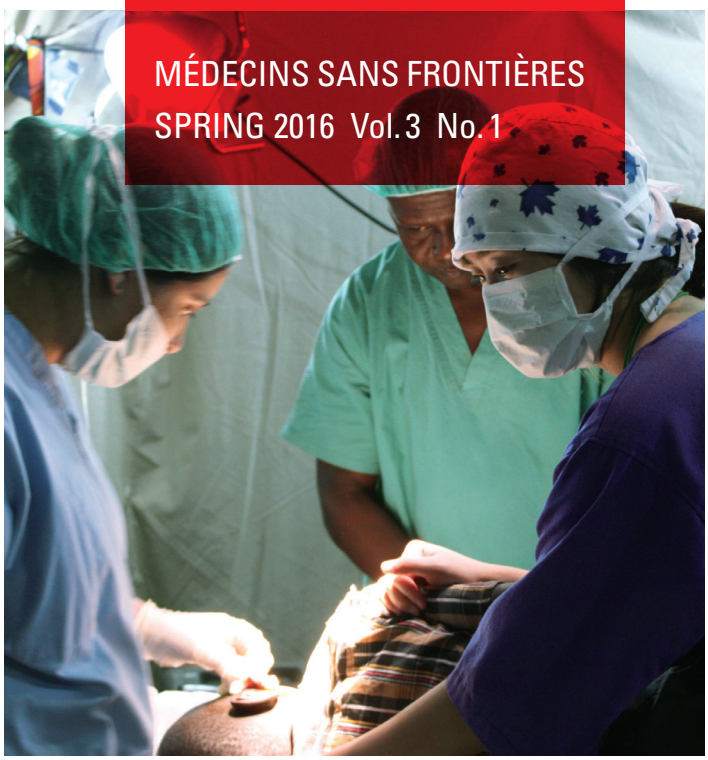
MEDECINS SANS FRONTIERES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SPRING 2016 Vol.3 No.1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를 입는 다는 것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역삼동 677-18) 조이타워 5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이사회 제레미 보딘, 브루노 조쿰, 김나연, 김남렬, 이효민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인사팀 줄리 페통, 김은선
재무/사무팀 조은미, 김정민, 최연남
후원개발팀 윤지현, 김지영, 김희로, 오민정, 정유정
홍보팀 윤주웅, 김미정, 김주영, 이혜련, 정태은, 최정혜
디자인 slowalk

COVER PHOTO 사진1. © 차선아 / 국경없는의사회
사진2. © Hiroko Taniguchi / MSF 사진3. © 김아진 / 국경없는의사회

목차

03 구호 현장의 사람들
04 현장에 필요한 인력
05 기본 자격 요건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라면 갖춰야 할 것들**
06 한국인 구호 활동가
07 현장활동기1 **그렇게 구호 활동가가 되어 간다**
08 현장활동기2 **이곳, 현장 생활을 소개합니다**
09 현장에는 무엇을 가져갈까요
10 현장활동기3 **현장에서 온 일기**
12 현장인력팀 인터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14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요
15 현장 활동 및 채용 설명회

제가 처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되어 대학살이 시작되기 직전의 르완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스물여섯 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를 입는다는 것은 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의 가치가 명시된 국경없는의사회 헌장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도 구성원으로서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를 함께 입고 있다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공동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제게 있어서, 이 일은 세상을 더 알아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티셔츠를 입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뒤로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를 입고 처음 현장에 파견되는 벅찬 흥분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티셔츠는 각기 다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인도주의 의료활동의 원동력인 구호 활동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호 활동가들의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들이 구호 활동가로서, 후원자로서, 혹은 지지자로서, 여러분의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구호 현장의 사람들

© Dorothée Thiénot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의료 소외 등에 대응해 국경없는의사회가 60여 개국에서 펼치는 의료 구호 활동은 3천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와 3만여 명의 현지인 직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소개할 때면, 구호 활동가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되는지, 더불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구호 활동가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의료, 행정 그리고 로지스틱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종종 의료인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구호 현장으로 파견되는 구호 활동가의 절반 가까이 되는 40%는 비의료인입니다.

구호팀은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한국인들이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5년까지 34명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가 참여했고, 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인적 구성 비율(%)

국제 구호 활동가 비율(%)

궁금했어요 구호 활동가들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SNS 채널을 통해 받았습니다.

"구호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김성태님, 김미린님의 질문

내과의 유서희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긴급 구호 프로젝트에 있는 동안 초기 환자 사망률이 50%에 달했는데요, 중환자실 운영 강화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3개월 후 2%까지 사망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퇴원하는 환자들을 볼 때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기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

국경없는의사회는 주로 1차 및 2차 의료 지원, 수술, 병원 재건 및 운영, 예방 접종, 전염병 통제,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 운영, 심리 치료, 현지 의료팀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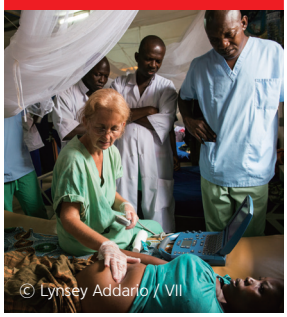
내과의·소아과의

© Yann Libessart / MSF

외과의·정형외과의·마취과의

© Yann Libessart / MSF

산부인과의


© Lynsey Addario / VII

조산사

© Matthias Steinbach

간호사

© Camille Lepage / Polaris

정신과의·심리학자

© Matthias Steinbach

약사

© Samantha Reinders

역학자

© Anna Surinyach

전염성 질환 전문가로, 사망률, 유병률 등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담당합니다.

비의료 인력

진단검사전문가

© Leonora Baumann

질병 검사, 진단 장비 관리, 혈액 공급, 전염병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합니다.

보건홍보 담당자

© Tommy Trenchard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행정가

© Kate Geraghty

재정, 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로지스티션

© Florian Lems / MSF

물자 공급, 차량, 통신 장비, 기계, 전기 관리, 건축 및 건물 관리, 식수위생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로지스티션이라고 말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라면 갖춰야 할 것들

현지 직원 감독, 훈련에 대한 경험과 관심

대부분의 현장 활동에 현지 직원 훈련 및 관리 업무가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

국경없는의사회의 여러 프로젝트는 분쟁 지역과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담당 업무 또한 달라질 수 있고, 팀 구성과 작업 환경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융통성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영어/프랑스어 구사력

현장에서 업무 언어는 주로 영어나 프랑스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쌓아가며, 다국적 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능력

현장에서 활동가는 전문적인 태도로 최소한의 지시 아래 자율적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국경없는의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책임감**
-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각 분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다국적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며 일할 수 있는 능력

궁금했어요

"파견지는 어떻게 배정하나요?" 박한영님의 질문

채용 담당자 구호 활동가의 활동 국가를 결정할 때에는 현장의 필요, 활동가의 기술, 경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특정 업무 혹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한 후, 그 사람에게 맞는 업무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헌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상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특정 국가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호 활동을 하시나요?" 이주형님, 최예진님의 질문

마취과의 이효민 현장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광범위한 위기관리 절차와 보안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호 활동가들은 활동에 앞서 해당 국가의 치안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듣게 되고, 프로젝트 지역에 도착하면 구체적인 치안 정보와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활동가는 개인과 전체 팀의 활동 및 안전을 위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인 구호 활동가

현장 활동에 참여한 한국인 구호 활동가

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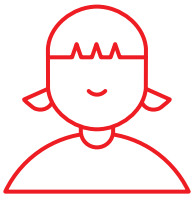
인력 구성

9명

일반의·내과의·가정의학과의

간호사(8명), 행정가(5명), 마취과의(3명), 산부인과의(3명), 외과의(2명) 이외 약사·심리학자·소아과의 등

성별



여성 71%

평균 연령

39세

다녀온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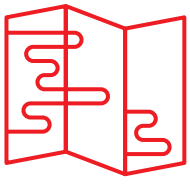
33개국

가장 많이 다녀온 국가

남수단 1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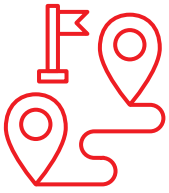
나이지리아(9회), 파키스탄(9회), 에티오피아(7회), 우간다(5회)

다녀온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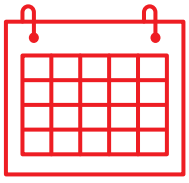
92개 프로젝트

총 활동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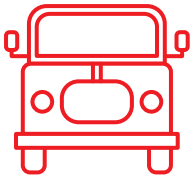
10,747일 = 29년

프로젝트 별 평균 활동 기간



3.8개월

평균 현장 프로젝트 참여 횟수
(1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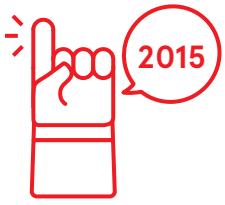


2.7회

가장 오랜 경력의 활동가가 참여한 프로젝트 수

10개

신규 구호 활동가의 비율
(2015년 기준)



33%

“그렇게 구호 활동가가 되어 간다”

현장 활동기 ①

마취과 의사 이효민

내게는 6번째 활동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3년 내전 발발 이후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난민들이 주변 국가에 퍼져 있고, 국내 실향민들의 수도 그만큼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수도인 방기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술실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아공 전역에서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내가 다녀온 곳, 보상고아(Bossangoa)는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곳인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 수술과 모자보건, 영양실조 관리, 정신건강 관리 등을 포함한 1·2차 진료 등 현지 수련 병원을 지원하고,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13년 내전이 격화되기 직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보상고아에 수많은 실향민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내가 근무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내 눈에는 정말 허름했지만, 이곳 병원은 중아공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한다.

마취과 의사가 하는 일

마취과 의사로서 현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수술환자 마취와 수술 전후의 환자 관리이다. 수술을 위한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다. 위급한 산모들을 위한 제왕절개는 기본이고,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복막염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 화상과 총상 환자 관리, 괴사근막염 환자 수술 등을 주로 시행하였다.

이곳에서는 의료 지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방치된 환자들이 많았다. 두피에 생긴 상처로 내원한 10개월 아기의 경우에는 감염이 심해져서 피부와 근육층까지 괴사되었고 머리에 어른 손바닥만한 상처가 생겨 아래에 있는 뼈까지 드러나 있었다.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해준 뒤 이틀에 한 번씩 상처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 뼈를 점점 덮어가는 것을 보는 게 내 기쁨 중 하나였다.

수술실에서 마취과의 이효민

경험을 거듭할수록

한국에서는 장비와 약품이 부족할 것 없이 갖춰진 병원들에서 주로 근무했기 때문에, 처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현장에 갔을 때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 “내게 이런 장비가 있다면, 이런 약품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맞게 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나는 장비와 약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교차했다.

점차 현장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데 익숙해져 갔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이곳, 현장 생활을 소개합니다

박선영 간호사의 첫 활동지, 남수단

"화상 입은 두 살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에 피부가 없다 보니까 피부이식 수술을 했지만, 처음에는 걷지 못했어요. 그러다 3개월쯤 지난 뒤 아기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아이가 엄마를 잡고 앞으로 걸어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걷지 못해서 다른 또래 아이들은 뛰어 다니는데 그 아이는 보고 있기만 했거든요."

남수단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끊임없는 내전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랑키엔은 그래도 남수단 내 다른 긴급 프로젝트보다는 체계적인 병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외과병동, 내과병동, 중환자실, 영양관리병동, 모자병동, 분만실, 흑열병 외래병동, 그리고 결핵과 HIV/AIDS 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규모도 비교적 크고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물론 병동이 텐트로 지어져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병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병동은 항상 붐비고 외래를 찾는 환자들은 하루에 수백 명에 달합니다.

현장의 일과

보통 일과는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인수인계와 안전에 관한 짧은 직원 회의로 오전 근무를 시작합니다. 12-2시 사이 시간 날 때 점심을 먹고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정말 더워서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오후 근무를 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보통은 5시에 일반 근무가 끝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각 부서의 당직근무자가 담당합니다.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서게 되고, 근무자는 무전기를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현지 직원의 도움 요청에 응하기도 하고 입원 관리를 하거나 응급환자를 받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인력의 절반 가까이는 식수 및 위생, 물류이송, 안전 등을 담당하는 비의료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의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활동하면서 지켜야 했던 가장 기본적이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흡사 섬과도 같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밖에 드나들 수 없고 외출할 때는 무전기를 지참하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에게 출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오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건, 국경없는의사회가 이렇게 안전에 최우선으로 민감하게 대처했기 때문이겠지요. 안전 수칙을 지키면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이상 시장에 가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됩니다. 주말이면 직원과 현지인 간에 축구경기가 열리기도 하고 게임을 하거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동료들에게 계란찜, 김밥, 김치, 참치전 등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랑키엔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함께

제가 있던 2월부터 8월까지는 건기와 우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3월은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고, 5월 이후부터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건기에는 약 40도에 이르는 뜨거운 기온과 엄청난 건조함이 찾아옵니다. 습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콧속이 바짝바짝 마르고, 선풍기뿐인 방 안에서 더위와 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기에는 무릎 아래까지 차오르도록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곤충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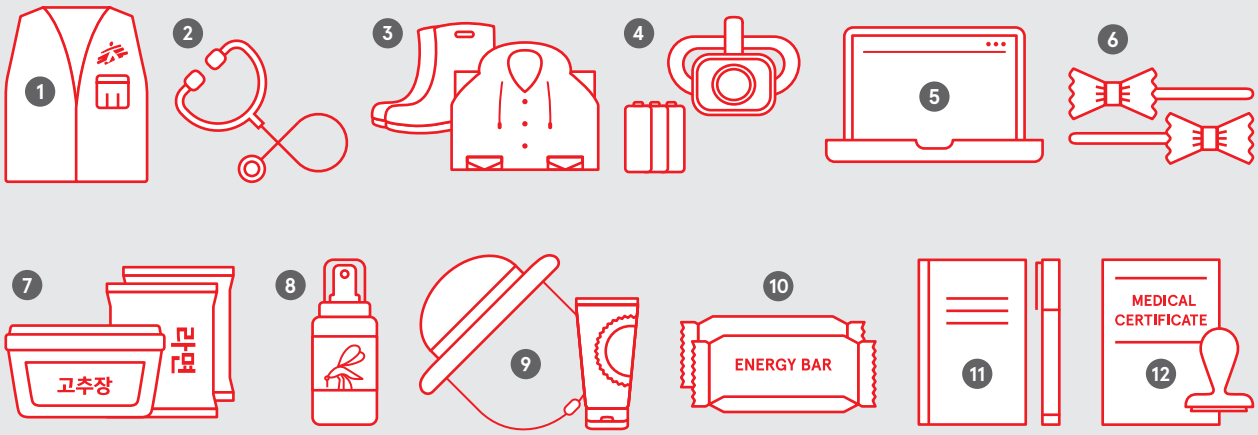
기쁨도 슬픔도 일상의 일부

지내는 동안 기쁘고 행복했던 적도 있지만 분명 어려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동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설득해야 했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지 직원의 대부분은 의료지식이 없어서 교육을 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환자를 생각할 수 있는 의료 인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외로움 혹은 이별에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외로웠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활동 기간을 마치고 떠나면 힘들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총상환자가 많았는데 그중 3분의 1은 10대 혹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총상환자 외에도 화상을 입거나, 뱀에 물리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작은 상처가 감염되어 오는 소아환자도 많습니다. 내전 속에서 상처입고 혹은 이미 불구가 된 채 병원 안에서 전쟁놀이를 하기도 하고, 붕대를 감은 채로 뛰어 놀면서 치료를 기다립니다. 17세에 총상으로 오른팔을 잃은 아이, 두 살에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아이, 뱀에 물려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8세 소녀… 그 외에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많은 아이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동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박선영 간호사

현장에는 무엇을 가져갈까요? 남수단으로 향하던 이영수 간호사의 가방 속



1.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 혹은 조끼
2. 개인적으로 챙긴 청진기
3. 우기에 대비할 장화와 우비
4. 불안정한 전력 상황에 대비할 헤드램프와 건전지
5.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한 자료, 개인적으로 휴식시간에 들을 음악이나 볼 영화를 넣은 노트북, 외장하드
6. 동생이 만들어 준 선물용 리본핀
7. 한국음식이 생각날 때를 대비해 라면, 김, 미역, 간장, 고추장, 참기름, 차
8. 모기향, 모기 퇴치제
9. 해를 가려줄 선크림, 모자
10. 에너지바
11. 필기구
12. 건강검진, 예방접종 증명서

현장에서 온 일기

행정가 김아진

국경없는의사회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보르노 주에서 보코하람으로 인한 실향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향민 캠프 내의 진료소 운영, 위생/식수 공급, 긴급 콜레라 치료활동, 심리치료, 5세 이하의 유아와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모자 병원 운영, 외과 수술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호 활동가 김아진은 이곳에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긴급대응팀의 인사, 재정 담당 코디네이터를 맡았습니다.

6월 2일

오후 3시. 이틀간의 긴 여정 끝에 코디네이션 사무실이 있는 수도 아부자에서 현장이 있는 마이두구리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때문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이동해야 했다. 중간에 하룻밤을 묵고, 비포장 길을 쉴 새 없이 달렸더니 다리도 허리도 너무 아프다.

그동안 전화로만 이야기했던 현장의 동료들을 만나고, 보고서와 회의에서만 접했던 활동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떴다. 코디네이션팀에서 일한 지 3년째이지만 현장에 오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도착하자마자 현지 행정직원인 이지케가 나에게 달려왔다. 처리해야 할 일들 – 채용절차, 급여지급, 신규직원들에 대한 인사절차 안내, 회계처리– 을 의논하고 일정을 잡았다. 회계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니 어느새 저녁 7시가 훌쩍 넘었다.

숙소로 가니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보르노는 4월 말부터 시작된 긴급 프로젝트로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서 방이 부족했다. 임시로 거실에 파티션을 치고, 창고를 방으로 개조를 했지만 그마저 부족해서 몇몇은 근처 이름뿐인 호텔에서 묵고 있다. 내가 2주 동안 묵을 방 역시, 거실 한 켠을 판자로 나누어서 3개의 방을 만든 것이어서 방음도 되지 않고 조명도 하나로 묶여 있어 불을 끄는 것도 상의를 해야 했다.

6월 3일

아프리카의 아침, 특히나 현장의 아침은 언제나 빨리 시작된다. 숙소에서는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아침식사를 하느라 또 공동욕실을 사이좋게 나눠 쓰느라 분주하다.

마이무사리 병원에서 폴리오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아이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마이무사리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을 채용하는 날이다. 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인들도 위험하다고 오기를 꺼리는 곳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면접대상자가 5명이나 됐다. 의료 코디네이터인 알리와 면접 진행과 평가방식에 대해 상의를 한 뒤에 지필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매니저이자 간호사인 르방과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함께 검토했다. 새로 운영할 입원병동을 맡을 인력을 뽑아야 한다. 수백 장의 이력서가 이메일과 인편으로 도착해 있어서 분류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나 걸렸다. 이력서를 읽으면서 지원자들을 가려낸 뒤, 의사 면접을 위해 다시 옆 사무실로 달려갔다.

알리와 나는 각 지원자들을 30-40분 정도 개별 면접했는데, 아부자나 라고스 같은 대도시 출신임에도 마이두구리에 와서 보람있는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의욕에 찬 젊은 의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

오후에는 현장책임 담당자 파이잘, 의료 코디네이터 알리와 함께 6월 말에 있는 예산 변경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 보르노는 추가적으로 진료소 2곳과 병원 2곳을 운영할 예정이라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셋은 필요한 인력, 사용될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진료소나 병원의 증축, 보수, 관리 등 올해 말까지의 운영계획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본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예산 변경은 쉽지 않지만, 행정담당자인 내가 프로젝트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이두구리 진료소에서 김아진 활동가

마이무사리 병원 중환자실

6월 4일

오늘은 마이무사리 병원 직원회의에 참석하고 국내 실향민 캠프를 방문하기 위해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마이두구리에 도착한 이후 사무실과 숙소만 왔다 갔다 해서 바깥 공기를 쐬는 건 이틀 만이다.

마이두구리의 아침은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로 꽤나 분주해서 교통체증이 생각보다 심했다. 마이두구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지 시골이 아니다. 국경무역이 왕성한 국제도시이고 세련되고 큰 도시였다. 사람들은 분쟁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6월 보르노의 햇볕은 따갑고 건조하다. 온통 황토색 흙먼지가 가득해 초록빛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늘이라고는 없다. 실향민 캠프를 둘러보기 위해 잠깐 걷기만 했는데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을 발갛게 익어버렸다.

근처 마을이 보코하람에 의해 불에 타면서 사람들이 캠프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국경없는의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한 방문이다. 마을 지도자들은 식수와 화장실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위생/식수 담당자인 폴은 필요한 식수 공급량을 계산하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았다. 창문도 없고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은 미완성 건물의 방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실내 역시 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현장인력팀 인터뷰

Q. 현장인력팀이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장 인력팀은 구호 활동가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이후 구호 활동가들의 모든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의료계, 비의료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호 활동가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Q. 구호 활동가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진정한 열정을 품고 적응력과 융통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되는 활동가가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Q. 구호 활동가들을 채용하거나 현장에 배치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활동가를 바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국을 떠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정 헌신이 필요하면서도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Q. 지원자들은 어떤 질문을 자주 하나요?

현장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자신의 배경이나 경력이 충분한지를 자주 묻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은 남을 돕겠다는 열정과 강한 의지에는 확신이 있는 반면, 본인이 갖춘 기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문의를 주시면 자격요건에 맞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가 되려는 분들께 권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지원하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코 모를 겁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 국경없는의사회와 구호 활동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물론 머뭇거릴 만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서의 삶을 경험해 볼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것입니다!

구호 활동가를 모집하고 파견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인력팀. 구호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팀을 총괄하고 있는 모나 엘보레이(Mona El Borei) 이사에게 현장인력팀이 하는 일과 구호 활동가 채용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Q. 국경없는의사회 안에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기회가 있나요?

물론이죠! 국경없는의사회 안에는 구호 활동가의 모든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현장 활동을 마친 구호 활동가가 뒤이어 국경없는의사회 안에서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 최선일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Q. 지금 하고 계신 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Q.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로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호 활동가로서 얻는 유익이라면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통해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실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채용 과정

지원 방법 및 과정

1. 지원 준비

현장 활동 및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국경없는의사회 헌장, 채용 분야, 활동 소식, 자주 묻는 질문 등-를 확인하세요.

2. 지원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apply@seoul.msf.org)~~로 제출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tothefield@seoul.msf.org

3. 1차 서류 심사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이력서 및 체크리스트(일부 분야만 해당)를 검토하여 지원자가 파견 희망 분야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4. 2차 면접 심사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5. 인력풀 등록

2차 면접 심사까지 통과한 지원자는 의료 자격증, 취득 학위 등의 추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풀에 등록됩니다.

6. 파견 전 교육/연수

인력풀에 등록된 지원자는 준비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행정가와 로지스티션은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7. 파견지 결정 및 출국 준비

국경없는의사회 운영센터와 협력하여 구호 현장에 적합한 자리가 결정되면 지원자에게 알립니다. 비자 발급, 항공권 발권 등 출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8. 사전 브리핑 및 출국

활동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받고 현장에 파견됩니다.

* 심사 기간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한 시기보다 3-4개월 전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요”

드물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활동가 중에는 인류학, 건축, 토목 등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인 로버트 말리어스(Robert Malies)도 구호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MSF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현장에서 병원을 설계하고 짓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 활동은 항상 생명을 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물을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온 후에 병에 걸린다면 국경없는의사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병동에 사람이 많아 병상을 나눠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병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고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빈번하다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안겨주어야 할 장소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그런 곳으로 갑니다. 최근에 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보상고아에서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014년 국경없는의사회가 이 곳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기존 병원 건물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 금세 드러났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병원 역량을 높이고, 필요에 맞는 설계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 역할은 집중치료실과 결핵 병동 건물을 설계하고 이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환자들 사이의 교차 감염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통풍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건물, 각종 시설, 창문 등을 설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환자들에게도 위안이 되지만, 공기 중의 박테리아 수를 최소화하여 환자들 사이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병실에 들어오는 자연광을 늘리기 위해 투명한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로써 박테리아들을 자외선에 노출시켜 죽일 수 있거든요. 병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의심환자, 확진환자, 약제내성 환자를 각각 분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동을 나눌 뿐 아니라 조리실, 목욕실, 위생실도 분리하여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커다란 그늘 베란다를 만들어 환자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공기를 타고 전염되는 물질들이 바로 흩어져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마다 현지 건설자들에게 친숙한 건설 방법을 택하고, 최대한 현지 시장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건물을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에도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하려고 늘 노력하지만, 결코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그 건물이 환자들을 위해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들의 지원 속에 우리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줄 하나의 유산을 지을 수 있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궁금했어요

“구호 활동 하시면서 식사 준비는 활동가분들이 직접 하나요? 또 재료는 어디에서 구해서 먹나요?” Juhyeon Pyun님의 질문

간호사 차선아 현장에는 주로 현지인 요리사가 있어 식사를 준비해줍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쉬는 주말에는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자재는 현지에서 주로 구하고, 구하기 어려운 일부 식재료는 현지 국가의 수도 등지에서 조달합니다.

현장 활동 및 채용 설명회

4월 9일(토) 서울

4월 10일(일) 부산

시간 오후 1:00 – 3:00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 참가비는 무료이나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msf.or.kr/info-sessions)

프로그램

국경없는의사회 소개
현장 활동 경험 소개
질의응답

발표자

유서희 활동가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 현장 활동에 참여한 내과의

후원하기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미친 사람, 우리는 앞으로도 美(아름다울 미)嘳(베풀 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구호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 ₩ **20,000** 한 달간 **17명**을 치료할 수 있는 **말라리아 예방약**
- ₩ **30,000** 한 달간 **1명**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실조 치료식**
- ₩ **50,000** 한 달간 **17명**을 치료할 수 있는 **드레싱 키트**
- ₩ **70,000** 두 달간 **4인** 난민 가정을 위한 **깨끗한 물**
- ₩ **120,000** 350명의 아이를 접종할 수 있는 **홍역 백신**
- ₩ **200,000** 12명의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가정출산세트**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는 방법

홈페이지
donate.msf.or.kr

후원자센터
전화상담 02-3703-3555
기업후원 02-3703-3554

거리모금 캠페인
캠페이너와 직접 상담

계좌이체
신한 140-009-508856
농협 301-0097-1045-31

MEDECINS SANS FRONTIERES
국경없는의사회

www.msf.or.kr

숙소 한 켠에 나란히 말려둔, 때 묻은 구호 활동가의 티셔츠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